

(2)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총수출과 부가가치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연구책임자

- 황운중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책 <input type="checkbox"/>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개별 구성요소가 양국간 총 교역과 부가가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개선방향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그 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FTA 상대국과의 교역관계가 심화되었음.
-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최근 콜롬비아와의 FTA (2016년 7월)까지 발효하면서, 현재 53개국과 15건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함.
- 또한 중미의 5개국¹⁾과의 FTA가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한·이스라엘 FTA, 한·에콰도르 SECA, RCEP 등 다양한 자유무역 협상이 진행 중임.

표 1. 한국의 FTA 발효 현황

FTA 상대국	발효 시점	FTA 상대국	발효 시점	FTA 상대국	발효 시점
EFTA(4)	2006.09.01	ASEAN(10)	2007.06.01	EU(28)	2011.07.01
칠레	2004.04.01	싱가포르	2006.03.02	인도	2010.01.01
페루	2011.08.01	미국	2012.03.15	터키	2013.05.01
호주	2014.12.12	캐나다	2015.01.01	중국	2015.12.20
뉴질랜드	2015.12.20	베트남	2015.12.20	콜롬비아	2016.07.15

출처: www.fta.go.kr

- 주요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그 이행상황과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1)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그 동안 FTA성과에 대한 연구는 교역, 성장, 소비자 후생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음.
- 다만 정량분석은 주로 상품교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FTA 협정문의 개별요소별 영향보다는 FTA체결 여부 또는 관세하락에 따른 효과를 주로 분석하고 있음.
- 현재 통상절차법에 의해 수행중인 FTA 이행상황 평가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한 상품 교역에 초점을 두고 엄밀한 정량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역시 FTA의 전체적인 효과만을 고려하고 있음.
 - 따라서 FTA발효 이후에도 관세감축이 진행되지 않은 품목의 교역급증에 대해 비관세장벽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한 효과일 것으로 추론하는 실정임.
-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고 최근 메가 FTA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FTA의 개별 구성요소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와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자료(database)를 구축하고 있음.
 - ADB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체결된 FTA를 대상으로 협정문상 포괄 범위와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있음
 - APEC차원에서는 FTA세부조항별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나 2007년의 FTA 조항을 토대로 작성되어 일부 신무역규범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강행규범인지 협력규정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음.
 - 최근 Worldbank(2017)에서는 1958~2015년 동안 189개국간 체결된 279개 FTA 협정문에 포함된 총 52개 세부조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52개 세부조항에 대한 i)조항의 포함여부(AC), ii)조항의 법적 구속력(LE, 강행규정여부와 분쟁대상여부)를 제공
 - 52개 세부조항은 i)WTO보다 자유화가 진전된 요소(WTO plus)와 ii)WTO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았던 요소(WTO-X)로 구분
 - ※ WTO Plus와 WTO-X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WTO 멤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조항별 구성요소가 교역(부가가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FTA여부에 따라 어떻게 상이한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Description of variables concerning PTA's provisions	
WTO+AC	0 if the provision is not mentioned (or too generally mentioned) in the agreement 1 if the provision is mentioned in the agreement
WTO+LE	0 if the provision is not mentioned in the agreement or not legally enforceable 1 if the provision is mentioned, legally enforceable but explicitly excluded by dispute settlement provision 2 if the provision is mentioned and legally enforceable
WTO-X AC	0 if the provision is not mentioned (or too generally mentioned) in the agreement 1 if the provision is mentioned in the agreement
WTO-X LE	0 if the provision is not mentioned in the agreement or not legally enforceable 1 if the provision is mentioned, legally enforceable but explicitly excluded by dispute settlement provision 2 if the provision is mentioned and legally enforceable

- 예를 들어, 한·EU FTA의 경우 i)데이터 보호규정(data protection) 조항이 없기 때문에 WTO-X LE=0, ii)노동시장규제(labor market regulation)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WTO-X LE=1, iii)지적재산권(IPR)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적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WTO-X LE=2

□ 기체결 FTA협정의 이행상 개선방향 및 새로운 FTA협상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FTA의 구성요소별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한국의 기체결 FTA에 대해 개별 구성요소의 포함여부 및 법적구속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이행상 개선방향을 검토할 수 있으며,
- 특정 구성요소가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핵심 구성요소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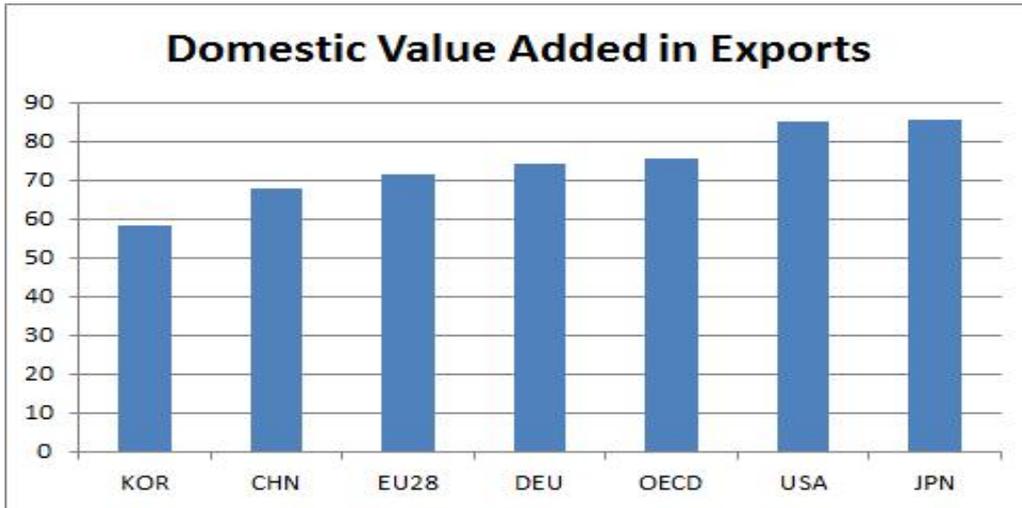
□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의 배경에는 자유무역이 일자리에 미치는 악영향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일자리는 총 교역 규모가 아닌 교역에 따른 부가가치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FTA의 성과를 부가가치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 측면에서의 FTA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일자리관련 FTA 정책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성 기대
-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 교역은 급속히 증가한 반면, 교역을 통해 창출되는 국내 부가가치는 다소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 한국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은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총액 기준 수출과 부가가치 기준 수출에 큰 차이를 보임.

- 특히, 한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에 따른 수입중간재 의존도가 높아지고 총생산에서 국내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표 2.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 부가가치 비중(2011년)



자료: OECD

표 3. 주요국의 투입구조 변화 추이



자료: 무역협회

- 교역과 교역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한 세계 투입산출자료(World Input Output Database)는 현재 2014년도 자료까지 가용함.2)
- 한국이 주요국과 체결한 FTA가 대부분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발효된 바, 아직 한국이 체결한 FTA의 성과를 부가가치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2) SNA 1993년 버전으로는 1995~2011년간 40개국의 자료가 가용하며, SNA 2008년 버전으로는 2000~2014년간 43개국 자료가 가용함.

드문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WorldBank의 FTA 구성요소별 DB와 WIOD자료를 이용하여 FTA가 부가가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FTA 구성요소별 교역(총교역 및 부가가치교역)효과는 멤버국의 기술수준 등 institution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고려한 분석(예, 교차항 구성 등)

■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FTA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협정문의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핵심 조항을 식별하는 한편, FTA가 총교역과 부가가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나눠 살펴봄으로써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통상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동아시아의 가치사슬 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목적: 본 연구는 동아시아 역내의 경제통합현황 및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CGE 분석기법을 통해 FTA 협상의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동아시아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WTO의 IDB, UN COMTRADE, UNCTADE World Investment Report 등을 이용한 데이터분석 - 세계투입산출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글로벌 가치사슬구조 분석 - GTAP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CGE분석	- 동아시아 국가의 무역·관세·산업구조 비교분석과 경제통합현황 분석 - 동아시아 국가의 생산네트워크 또는 가치사슬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 -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간 상호의존성 분석 - 동아시아 FTA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 향후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2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최낙균·한진희, 2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계량분석	- 연구목적: 고용이 무역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국별·산업별 분석 - 수출이 숙련 및 비숙련노동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부가가치기준의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
	3	- Horizontal Depth: A new database on the content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Hofmann et al, 2017), WorldBank	문헌분석 통계분석	- 1958-2015년간 189개국 간 체결되어 WTO통보된 279개 무역협정의 포괄범위 등을 망라한 자료 구축 자료에 기반하여 stylized facts 식별
	4	- Estimating trade policy effects with structural gravity	이론분석 계량분석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이 직면하게 되는

	(Piermartini and Yotov, 2016), WTO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structural model을 제시 제안한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모형의 유용성 검증
5	Deep Integration. The Heterogeneity of Free Trade Agreement and their impact on Bilateral Trade (Ahcar and Siroen, 2015), Dauphine University Paris	계량분석	WTO(2011)와 DESTA-WTI(2014) 자료를 이용하여 협정 수준(deeper RTAs) 높을수록 양자간 교역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실증 분석
본 연구	-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총수출과 부가가치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황운중, 김영귀)	협정문 분석 계량분석	FTA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협정문의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분석 FTA가 총교역과 부가가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

■ 주요 연구내용

□ Worldbank(2017)의 자료를 토대로 FTA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

- Worldbank에서는 1958~2015년 기간 동안 189개국간 체결된 279개의 협정에 대해 52개 구성요소를 정량화한 자료
- 이를 토대로 최근 체결된 FTA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구성요소와 그 구속력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의 기체결 FTA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이행 개선방향 도출

□ FTA 구성요소별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

- FTA의 교역효과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중력모형에 대한 논의를 정리(Multilateral Resistance, Zero trade flows, Heterosekdasticity of trade data, Bilateral trade costs, Endogeneity of trade policy, Non discriminatory trade policy, Adjustment to trade policy changes 등)하고, Piermartini and Yotov(2016) 제안모형을 활용
- WorldBank의 FTA DB와 교역자료를 토대로 FTA 구성요소별 교역영향을 분석

□ FTA가 총교역과 부가가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비교·분석

- WorldBank의 FTA DB와 WIOD를 토대로 도출된 교역 및 부가가치 교역 자료를 이용하여 FTA 구성요소가 부가가치 교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목차 (잠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FTA협정문의 구성요소 분석

1. FTA협정문의 구성요소별 주요 내용
2. 한국의 기체결 FTA 및 주요 FTA 비교분석
3. 기체결 FTA의 이행 개선방향

제3장. FTA 구성요소별 총교역 영향 분석

1. 중력모형 논의
2. 실증분석

제4장. FTA 구성요소별 부가가치 교역영향 분석

1. WIOD 및 부가가치 교역 논의
2. 실증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 협정문 분석
- 계량분석
- 전문가 간담회

■ 연구 추진일정

연구내용	추진일정											
	2017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	중분류	B1 경제일반
-----	------	-----	---------

■ 주제어

한글 (영문)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협정 내용 agreement contents	부가가치 무역 value-added trade
------------	--------------------------------	-----------------------------	------------------------------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산업통상자원부	○ FTA협정의 구성요소별 영향분석으로 대국민 홍보 및 정책우선 순위 결정에 참고 ○ 기체결 FTA 개선 및 새로운 FTA추진방향 설정에 참고
기획재정부	○ 협정문 구성요소별 교역효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제도 개선의 이해득실 파악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5	3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기대효과

□ 기대되는 정책적 기여도

- FTA 협정문의 구성요소별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체결 FTA의 이행 개선 방안 및 새로운 FTA 추진 전략에 대한 정책 시사점 제시
- FTA가 부가가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을 위한 바람직한 통상 및 FTA 추진 전략 제시

□ 기대되는 학술적 기여도

- FTA 협정문의 구성요소별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비관세장벽 및 규범 효과 세분화 가능
- FTA의 영향을 총 교역과 부가가치 교역으로 나눠 분석함으로써 부가가치의 중요성 강조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01.01.	종료일	2018.12.31.
------	---------	------	-------	-----	-------------	-----	-------------

■ 연구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62,000
1. 사업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인건비 - 사업인턴 (1,800×1인)×2월=3,600 	3,600
2. 공공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300×12월=3,600 ◦ 통신요금 100×12월=1,200 	4,800
3. 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모품 등 구입비 -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및 회의용품비 등 200×12월=2,4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6×700부=4,200 - 자료 복사비 100×12월=1,200 ◦ 간행물구입비 (250×12월)+90=3,090 ◦ 기타 수용비 - 운송료, 주차료 등 200×12월=2,400 	13,29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업무용 PC) 200×2월=400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2월=2,400 	2,800
5.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4인)×5회=2,000 ◦ 국외여비 - 미국(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Economy) (2,947×1인)×1회=2,950 ▪ 숙박비(가급지, 2호 라목) [(\$223×4박×1인)×1회]×1.13=1,010 ▪ 일·식비(가급지, 2호 라목) [(\$142×6일×1인)×1회]×1.13=96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80×1인)×1회=8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외 관련) (100×3인)×3회=900 ◦ 시내출장 50×12월=600 	8,500
6. 연구정보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1,000×12월=12,000 ◦ 특근매식비 (6×2인×10회)×10월=1,200 	13,200
7. 전문가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 (300×1인)×3회=9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 (100×3인)×3회=9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외)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500×1회=500 - 검독료 (200×5인)×1회=1,000 	5,550
8. 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4인)×3회×12월=5,400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1회×12월=2,160 - 연구심의회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20인)×3회=1,800 	10,260
9.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해당사항 없음	-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출장지(방문기관)	미국 USITC 또는 관련 연구기관
출장목적	기본과제 내용 의견 수렴
출장자(역할)	김영귀 연구위원 (발표)